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03호 [루게 제23420호] 주체100(2011)년 4월 13일(수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0056호

주체100(2011)년 4월 12일 평양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데 대하여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는 오늘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도의 정을 안고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경건한 마음으로 되새겨보면서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기어 이룩하고자 할데는 결의에 넘쳐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부강조국건설위업을 승리로 인도하시어 우리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로 존엄높은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우리 혁명무력은 오늘 당의 선군령도밑에 수령결사옹위정신이 짝 들어차고 필승불패의 전투적위력을 지닌 무진막강한 백두산혁명강군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어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무비의 영웅성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나는 당과 수령의 품속에서 자라난 인민군지휘성원들이 앞으로도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

리라는것을 굳게 믿으면서 뜻깊은 태양절에 즈음하여 인민군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다음과 같이 올릴것을 명령한다.

△ 상 장	오일정 황병서						
△ 중 장	송석원	장정남	채문석	허영호	리종무		
△ 소 장	정명구	최광준	허상문	김성철	홍영환	권기훈	전태호
	김상철	리일환	리봉춘	심철수	한성일	리성복	박정봉
	안기철	리동춘	허인선	리수길	진충렬	김관홍	서국옥
	박경환	전경신	리제영	허용길	홍영순	김정현	김수현
	김기웅	홍 기	송명권	주철호	김석호	김대성	차상석
							김덕철
							방용식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중국주재 아랍공보센터, 중국공공외교 문화교류센터에서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중국주재 아랍공보센터와 중국공공외교문화교류센터에서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선물을 무스타파 알 짜카리니 중국주재 아랍공보센터 위원장이 9일 지체중 본사기자

김일성청년영예상, 김일성소년영예상 수여식 진행

[평양 4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 민족최대의 명절인 태양절에 즈음하여 김일성청년영예상, 김일성소년영예상이 모범적인 청년동맹원들과 일군들, 소년단원들에게 수여되였다. 수여식이 12일 청년중앙회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전달된 다음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를 높이 받들고 당중앙위원회를 결사옹위하는 조선로동당의 민유적인 청년전위

주체100년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총서 《불멸의 력사》

우리 나라 수령형상문학발전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김일성상계관작품인 총서 《불멸의 력사》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스러운 혁명투쟁 력사를 예술적으로 훌륭히 재현한 역사문헌적가치를 가지는 혁명적대작이다.

4. 15 문학창작단에서는 주체61(1972)년부터 주체100(2011)년에 이르는 지금까지 총서 《불멸의 력사》 전 35권에 달하는 장편소설들을 창작완성하여 내놓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수령을 형상하는 문학사업은 총서 《불멸의 력사》가 창작되면서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하였다고 말할수 있다.》

조국과 민족, 인류앞에 거대한 공헌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고매한 위인적품모는 총서 《불멸의 력사》의 장편소설들에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집대성되여있다. 세계문학의 갈피를 더듬어 보면 로동계급의 걸출한 수령의 생애를 그린 유명한 문학작품도 많다. 그러나 이러한 창작활동들은 그 어떤 형상집단이 아니라 개별적인 작가들에 의하여 자연발생성을 띠고 진행되였다. 우리 나라에서처럼 수령의 혁명투쟁의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형상하고 수령이 서거한 후에도 수령형상문학이 수령형상문학으로 더욱 고조발전하고있는 예는 없다. 일찌기 새로운 혁명문학건설의 성숙된 요구를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총서 《불멸의 력사》를 성과적으로 창작할수 있는 지도적지침을 마련해주시였으며 4. 15 문학창작단이 나아가길 길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4. 15 문학창작단은 조직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고귀한 혁명생애를 형상한 국보적의의를 가지는 명작소설들을 창작하여 총서 《불멸의 력사》 창작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60돐에 즈음하여 장편소설 《1932년》, 《백두산기슭》, 《준엄한 진주》를 비롯한 항일혁명투쟁시기를 인민상을 수여받았다. 1980년대 후반기와 1990년대초에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빛나는 아침》, 《50년여름》, 《조선의 힘》을 비롯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 당과 국가의 수반으로 활동하시면서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모든 부문을 통일적으로 령도하시는 내용을 담은 장편소설들이 창작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혁명

순결한 총정은 세기와 세대를 이어

랑강도안의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

태양절을 맞으며 랑강도안의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속에서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에 순결한 마음을 바쳐가는 소행들이 더욱 높이 발휘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정말 우리 인민은 자기의 수령을 흠모하고 받드는 사상감정과 정신도덕적품모가 세계 그 어느 나라 인민들과도 대비할수 없이 교상한 인민인이다.》

해산시당위원회, 해산시인민위원회를 비롯한 시안의 기관, 기업소, 공장,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시안의 혁명사적지들을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에 순결한 마음을 바쳐가고있다. 뜻깊은 4월의 명절을 맞으며 도혁명전적지관리국, 도청년동맹위원회 일군들과 해산시 혁명전적지관리소 종업원들은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교양마당 주변에 꽃나무들을 정성껏 심고 가꾸고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우리 조국의 통성년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새기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영광의 교정에서 일하며 배우는 값있는 긍지를 안고 김일성보천보중학교의 교직원들과 학생들은 아침마다 봄을 맞은 보천보혁명전적지 교양마당주변의 화단정리에 지성을 다 바치고있다. 지난 기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전하는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교양마당주변에 꽃나무를 정성껏 심고 가꾸고있다. 신과혁명사적지관리처를 지난 수십년간 진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민유적인 계승자로 키웠으며 10여명의 김일성소년영예상수상



절세의 위인을 찬탄해 받들어모실 우리 인민의 신념의 글밭 수양산과 더불어 영원히 빛난다. 본사기자 찍음

모든 힘을 인민생활대고조제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기 힘에 대한 확신, 재능을 믿고 펼쳐나서면 뜻밖의 일이 없다는 배심을 지니고 우리의 걸과 기

능변견직 이룩하고있다. 념변견직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지난 1. 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한 기세높이 생산적양양의 불길을 새차례 지겨울리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의 일군들은 생산현장에 내려가 공동사회의 사상과 정신을 종업원들에게 되새겨주는 한편 절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가면서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있다.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여러건의 기술혁신안을 생산에 도입하면서 제품의 질을 훨씬 높이는 자량한 성과를

출, 우리의 자원으로 대고조의 진격로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본사기자 리수정

리, 기술편리를 짜고들어 모든 기대들의 만가동, 만무하를 보장하면서 매월 맡겨진 생산과제를 이겼다고있다. 집단적혁신의 불길은 공무직장에서도 새차례 타오르고있다. 이곳 직장의 보이라작업단 종업원들이 지난 1. 4분기생산계획을 수행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이들은 생산의 앞공정을 맡아나섰다는 자각을 안고 보이라를 정성적으로 운영하여 생산된 증기를 현장들에 제때에 보내주고있다. 가공직장의 종업원들도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특파기자

특파기자 리성호

